

취업준비생의 자기개념 명확성과 실패내성의 관계: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사회비교 경향성의 매개효과*

김 다 혜¹⁾

양 수 진²⁾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취업준비생의 자기개념 명확성과 실패내성의 관계와 그 관계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사회비교 경향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만 21~29세 취업준비생 350명(남 128명, 여 22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모형을 검정하였다. 분석결과, 자기개념 명확성과 실패내성 간의 직접효과가 정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사회비교 경향성의 단순매개효과도 유의하였다. 또한, 자기개념 명확성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사회비교 경향성을 순차적으로 거쳐 실패내성에 이르는 이중매개효과 역시 유의하였다. 더불어, 성별과 취업준비기간에 따른 차이검정 결과, 여성과 장기취업준비생이 더 취약한 심리적 특성을 나타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취업준비생의 실패에 대한 건설적 반응을 발달시키기 위해 필요한 일련의 심리적 특성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발달기제를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심리적 고통을 감소시키고 실패에 적응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책 마련 및 취업생태 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취업준비생, 실패내성, 자기개념 명확성,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사회비교 경향성

* 본 논문은 김다혜의 석사학위논문(2021)을 수정·보완한 것임.

1)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석사

2) 교신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부교수 (E-mail: sujinyang@ewha.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어떠한 예고도, 준비도 없이 찾아온 코로나 팬데믹¹⁾은 수많은 사회적 안전망을 붕괴시켰고, 개인의 정신건강을 무너뜨렸다(Vindegaard & Benros, 2020). 이러한 현 세태를 반영하듯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과 무기력감을 뜻하는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도 일상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한편, ‘코로나 블루’에 가장 취약한 계층 중 하나는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 계층일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청년 확장실업률은 27.2%로 구직 중인 청년 4명 중 1명 이상이 취업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1). 특히, 현재 취업절벽기에 속한 80년대 후반~90년대 초반 태생들은 코로나로 인해 잃어버린 기간이 지나도 기업이 선호하는 연령대가 아니기 때문에 평생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할 수 있다고 예측된다(홍태화, 2021). 이렇듯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며 청년들은 취업 절벽에 내몰리고 있고, 실업 상태 청년들의 정신건강이 위협받고 있다(McIntyre & Lee, 20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기간에 많은 실패를 경험하여 심리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실패에 적응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개인 특성과 그 발달 기제를 탐색하고자 한다.

청년 계층에게 취업이란 단순히 직업을 구해 사회에 나가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초기 성인기는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로(Erikson, 1968), 직업을 가지게 되는 것은 부모로부터 심리적·경제적 자립을 하는 기반이 된다. 따라서 취업은 독립적인 성인으로 성공적인 전환을 하기 위한 필수요건으로 여겨진다(김재희, 박은규, 2016). 게다가 취업은 이 시기 또 다른 중요한 발달과업인 결혼과도 연결되므로, 취업 실패는 청년 계층의 심리적 부담감을 가중시킬 수 있다(장휘숙, 2008). 한편,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면 청년들의 취업 실패와 그로 인한 심리적 부적응 문제를 개인화할 수 없다. 코로나로 인해 실질적인 구인수가 감소하여 개개인이 취업 시장에서 맞닥뜨릴 실패 횟수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와 지자체 단체에서는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이나 취업역량개발 프로그램과 같은 취업 지원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김혜지, 2021).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회적 개입만으로 일자리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겪을 무수히 많은 실패에도 건강하게 버텨낼 수 있도록, 개인 내부의 심리적 자산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개인 내적인 힘으로 고려될 수 있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는 ‘실패내성(failure tolerance)’이다. 실패내성이란 실패경험에 건설적인 태도로 반응하는 경향으로, 실패 후 적응적인 정서 및 행동 반응을 보이고, 도전적인 자세를 취하게 한다(Kim & Clifford, 1988). 구체적으로, 실패내성은 ‘실패경험 이후의 감

1)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가 선언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이하 코로나)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을 의미한다.

정적 반응의 정도(감정)',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방안을 강구하는 정도(행동)', '실패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과제를 선호하는 정도(과제난이도 선호)'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실패내성은 실패를 목표 성취의 한 과정으로 지각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므로, 코로나 시기 취업을 준비하는 성인 초기 청년들에게 필요한 자원일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실패내성이 높은 사람들은 실패상황에서도 자아존중감을 유지하였고(서미옥, 2019), 학습된 무기력이 낮았다(최현정, 이동귀, 2019). 또한, 이들은 높은 수준의 삶 만족도(전해옥, 2016)와 긍정정서(김은지, 김지영, 정세영, 2021)를 보였다. 반면, 실패내성이 낮은 사람들은 자기효능감 및 회복탄력성(박우영, 이양주, 2021)이 낮았으며, 낮은 진로적응성을 보였다(소유경, 양수진, 2021).

이처럼 실패내성은 건강한 심리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요인으로, 개인의 정신건강을 위한 내적 자산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 그뿐만 아니라 실패내성은 개입에 따른 변화의 가능성도 농후하다(최광호, 권혁철, 이영순, 2011). 하지만 실패내성의 적응적 기능과 개입의 용이성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연구에서는 실패내성이 예측하는 요인에 초점이 맞추어져, 어떻게 하면 실패내성이 발달할 수 있을지는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받았다. 그나마 현재까지 밝혀진 선행요인마저 양육태도(최현정, 이동귀, 2019), 애착(장수영, 2007)과 같이 학령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변인들에 머물러 있다. 앞서 기술하였듯 성인기, 특히 취업준비생들은 필연적으로 많은 실패를 경험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실패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본 연구가 부족한 이유 중 하나는 실패내성이 학습된 무기력과 더불어 교육 분야에서 주목받기 시작하여(Clifford, 1988), '학업적 실패내성(김아영, 1994)'으로 개념화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인기의 다양한 영역에서 보편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실패내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제안된 '일반적 실패내성(김아영, 2018)'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취업을 준비하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개인 내적 특성들이 일반적 실패내성을 예측하는지 확인하고, 실패에도 개인이 적응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기제를 밝히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실패내성을 예측할 수 있는 개인 내적 변인으로, 성인기에도 변화 가능성이 있으며(Styla, 2015) 실패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 '자기개념 명확성(self-concept clarity)'을 고려해볼 수 있다. 자기개념 명확성은 자기개념의 구조적인 측면으로, 자존감과 같은 자기개념의 내용이 정신건강을 좌우한다는 기존의 흐름을 넘어 심리적 기능과 관련하여 주목받고 있는 변인이다(Campbell, Assanand, & Paula, 2003). 구체적으로, 자기개념 명확성은 자기개념에 관한 내용이 명확하고 분명하게 정의되어 있으며, 내적으로 일관성이 있고 시간적으로 안정된 정도를 의미한다(Campbell, 1990; Campbell et al., 2003). 최근에는 역경이나 외상의 상황에서도 정신적 상태가 안정되게 유지하는 요인으로 밝혀져(Hayward, Vartanian, Kwok, & Newby, 2020), 실패내성과 긍정적 관계일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아직까지 자기개념 명확성과 실패내성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없었으나, 자기개념 명확성은 실패상황에서의 감정적 반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경희의 연구결과(2015), 자기개념 명확성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으로부터 비난받는 실험상황에서 부정정서 및 두려움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와 비슷하게, 자신의 수행이 하위 20%라는 거짓 피드백을 받은 상황에서도 자기개념 명확성이 높은 사람들은 부정정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Stucke & Sporer, 2002). 백수희의 연구(2002)에서 역시 자신에 대한 평가 결과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관계없이 자기개념 명확성이 높은 사람들은 정서상태가 일관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자기개념 명확성은 평가적인 상황 외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적응적인 정서기능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사랑하는 사람이 사망한 것과 같은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이 높은 사람들은 지속성 애도 장애를 덜 심각하게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Boelen, Keijsers, & van den Hout, 2012). 또한, 자기개념 명확성은 스트레스 상황에 비교적 둔감하게 반응하게 하고(Campbell, 1990), 우울과 불안을 덜 느끼도록 이끄는 것으로 밝혀졌다(Bigler, Neimeyer, & Brown, 2001).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자기개념 명확성은 정서조절 능력을 증진해(Parise, Canzi, Olivari, & Ferrari, 2019), 실패내성의 감정반응 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된다.

자기개념 명확성은 실패 후에 건설적으로 행동하는 것, 즉 실패내성의 행동반응 요인 역시 예측할 것으로 짐작된다. Smith, Wethington과 Zhan의 연구결과(1996), 자기개념이 명확한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회피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대처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부정적인 상황에 처하더라도 자신에게 도움이 되도록 정확하고 빠르게 판단을 내리고 행동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미를 찾아내고자 하였다(Bigler et al., 2001). 최근 연구에 의하면, 자기개념 명확성은 코로나 시대에 겪는 부정정서의 보호 요인으로 기능하기도 하였다. 코로나로 인한 봉쇄령이 내려진 2주간의 기간 동안, 자기개념 명확성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낮은 수준의 부정정서(Alessandri, De Longis, Golfieri, & Crocetti, 2020)를 보고했다. 종합하면, 자기개념 명확성은 예상치 못한 심각한 위협의 상황에서도 정서·행동적 측면에서 적응적인 기능을 하도록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자기개념 명확성의 순기능에 따라, Schwartz, Meca와 Petrova(2017)는 자기개념 명확성이 변화하는 상황이나 역경을 겪더라도, 그 이전의 자신에 대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즉, 역경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은 실패에도 적응적이고 건설적으로 대처하도록 이끌 것으로 추측된다. 성인기 초기는 특히 자기개념을 확립해나가는 시기로 자신에 대한 표상을 명확히 형성해나가는 것이 심리적 적응 증진에 도움을 준다(Hanley & Garland, 2017). 따라서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자원은 활용하기 어려워지고, 취업에서의 실패 확률은 증가하는 현시점에서 자기개념 명확성과 실패내성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취업준비생의 정신적 웰빙을 증진하는 데 기

여할 것이다.

자기개념 명확성이 실패내성을 정적으로 예측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이 과정을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intolerance of uncertainty)’이란 불확실한 상황을 과도하게 지각하고 해석하는 경향성으로, 인지·정서·행동적 수준의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Dugas et al., 2005). 자기개념 명확성이 낮을 때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커져 실패에 더 취약하게 반응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자신의 가치나 목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의내리기 어려워 실패 가능성이 있는 모호한 상황에서 더 쉽게 혼란함을 느끼기 때문이다(김더미, 2020). 반면, 자신에 대한 명확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안정감을 유지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Schwartz et al., 2017). 또한, 이들은 불확실한 상황이나 미래를 덜 위협적으로 지각하기에 사회적 상황에서의 긴장 및 불안 수준이 낮았고(박누리, 양재원, 2021), 취업 불안이 낮았다(김더미, 2020). 따라서 자기개념 명확성이 높아 불확실한 상황에도 잘 대처하는 사람들은 실패 상황을 덜 위협적으로 지각하고 실패를 건강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Leite와 Kuiper(2008)에 따르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만약 ~ 라면(what if)”과 같은 질문을 하며 가능한 결과들을 계속해서 생각해본다. 예를 들어, “만약 내가 그것을 배웠는데 실패한다면?”과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이다. 이처럼 자신의 활동에 대해 스스로 의문

을 던지는 일은 자신의 신념과 연관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결정을 피하기 위함이다(Leite & Kuiper, 2008). 그러나 이 같은 과정이 반복되면 도리어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커지고(김나래, 이기학, 2012), 문제에 적극적으로 부딪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경험을 회피하는 결정을 더 많이 내리게 된다(안계훈, 김은정, 2017). 이는 결과적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변화하는 기회를 놓치게 할 수 있고(Leite & Kuiper, 2008), 우울 등의 심리적 부작용(김효정, 김호영, 2019)과 낮은 실패내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최서경, 양수진, 2020). 실제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은 창업에 실패했을 때 더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 하고, 실패를 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하였다(하환호, 변충규, 2015).

한편,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경기침체 및 산업구조 변화와 같은 최근의 동향과 함께 취업 및 진로와 관련한 부작용을 예측하는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김태정, 민경화, 2020). 국내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 따르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진로탐색감을 저하시켜 소극적인 구직활동(이은영, 하정, 2016)으로 이어졌고, 취업불안에 영향을 미쳤다(김더미, 2020). 이에 더해 예기치 못하게 시작된 코로나19의 대유행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구직자들의 취약성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심리적 안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지목되었으며(Satici, Saricali, Satici, & Griffiths, 2020), 불확실성에 대

한 인내력 부족은 부적절한 대처로 이어져 우울이나 불안을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ttie & Daniels, 2020). 따라서 지금과 같이 불확실성이 커진 취업 시장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취업준비생의 실패 내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취업준비생의 자기개념 명확성과 실패내성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매개요인으로는 ‘사회비교 경향성(social comparison orientation)’을 고려해볼 수 있다. 현 20대 청년들은 입시 및 취업경쟁에 맞춰 짜여진 학업 과정에서 자기 탐색의 기회를 충분히 가지지 못해 자기이해에 어려움을 느낀다(김지경, 이윤주, 이민정, 2018). 게다가 한정된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치열한 취업난 속에 자신의 흥미나 가치에 대해 탐색하는 것은 사치처럼 여겨진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에 대해 이해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 뒤처지지 않는지 점검하는 것에 더 몰두하게 된다. 이는 자신의 직무나 전공과는 관련 없는 소위 ‘스펙 쌓기’에 열중하는 양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허창구, 2020).

이와 같은 과정에서 명확히 형성되지 못한 자기개념은 타인과 자신을 자주 비교하는 경향성인 사회비교 경향성을 높인다(박누리, 양재원, 2021). 이들은 자신에 대한 안정적인 내적 기준을 형성하지 못했기에 외부적인 평가나 상황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게 된다(김나래, 이기학, 2012). 즉, 자기개념 명확성은 사회비교 경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기개념 명확성이 낮은 사람들은 타인이 제공하는 피드백에 따라 자신에 대한 감정과 자기표사가 달라졌

다(Guerrettaz, Chang, von Hippel, Carroll, & Arkin, 2014). 또한, 이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더 많이 구하고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자신감이 낮았다(Duan, Xu, & Van Swol, 2020). 반면, 자기개념 명확성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 평가로 인한 영향을 덜 받았고(백수희, 2002), 사회적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을 덜 느꼈다(김안나, 최보영, 2019). 따라서 낮은 자기개념 명확성으로 인해 높아진 사회비교 경향성은 자신을 평가할 때 외부의 영향력을 키워 평가적인 상황에서 취약하게 반응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백수희, 2002).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회비교 경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에 과도한 두려움을 느꼈고(김정은, 홍정순, 2019), 실패 후 부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느꼈다(박서연, 윤미선, 2018). 따라서 자기개념 명확성과 실패내성과의 관계는 사회비교 경향성을 통해 매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한국 사회는 집단주의 문화에 속해 타인과 비교하는 성향이 커서(장은영, 2009), 연령에 맞는 발달과업을 주변보다 우수하게 수행하지 않으면 실패한 사람처럼 여기는 풍조가 만연하다. 이러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에 따라 취업의 성패는 인생의 성패처럼 여겨지고, 주변인들의 관심과 기대를 한 몸에 받아 취업준비생들은 타인을 더욱 의식하는 모습을 보인다(배진한, 2014). 따라서 취업준비생에 있어서 사회비교 경향성은 특히나 높아진다고 볼 수 있으며, 높아진 사회비교 경향성은 취업과정에서의 실패를 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사회비교 경향성은 불확실성에 대

한 인내력이 부족할 때 더욱 쉽게 발휘된다 (Butzer & Kuiper, 2006).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편감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크게 느낀다. 따라서 이들은 불편감을 줄이기 위해 사회적인 정보를 찾는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한다 (Kusec, Tallon, & Koerner, 2016). 이러한 전략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위치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특히, 현 취업상황과 같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져, 다른 사람들과 자주 비교하게 된다(김태정, 민경화, 2020). 이는 결국 지각된 진로장벽(김나래, 이기학, 2012), 취업불안(김더미, 2020) 등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져 효과적이지 않은 전략으로 작용한다. 이를 종합하면, 낮은 자기개념 명확성을 가진 사람들은 불확실한 상황을 더 불안정하게 받아들여 다른 사람과 자주 비교하게 되며, 실패에 취약하게 반응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즉, 자기개념 명확성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사회비교 경향성을 순차적으로 거쳐 실패내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선행연구에 따르면 각 변인에서 성별 간 차이가 나타났다. 실패내성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주를 이루었다(서미옥, 2019; 장수영, 2007). 그러나 ‘행동’ 하위요인에서는 여성이 더 높았다는 연구결과(김종운, 김유진, 2009)와 드물지만 남녀 간의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하여(박상희, 2009) 실패내성의 성차에 대한 반복 검증이 요구되었다. 실패내성 외 다른 변인에서도 성차가 확인되었는데, 자기개념 명확성은 남성

이 여성보다 높았고(Crocetti, Rubini, Branje, Koot, & Meeus, 2016),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조성연, 조한익, 2014)과 사회비교 경향성(서은희, 김정남, 2018)은 여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인들에 대한 성차는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는 거의 탐색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 이를 살펴보고, 차이가 나타날 경우 해당 변인의 영향력을 통제하여 모형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더해, 취업준비기간에 따른 변인 간 차이를 확인해 볼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취업준비기간이 길어질수록 정신건강이 악화된다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타나(McKee-Ryan, Song, Wanberg, & Kinicki, 2005; Paul & Moser, 2009) 취업준비기간에 따른 변인 간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시사된다. 더불어, 한국사회 내 청년 NEET층에 대한 개입이 시급히 요구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취업준비기간에 따른 심리적 특성의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본 연구의 표본 크기와 분석 방법 상 성별과 취업준비기간에 따른 다집단 분석 및 비교가 허용되지 않아, 기술통계 분석을 통한 차이 확인 후 해당 변인의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통제변인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요약컨대, 본 연구에서는 실패에 취약하면서도 많은 실패를 경험할 수 있는 취업준비생들의 개인적 특성을 파악하고, 실패에 적응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성인 ‘실패내성’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각 변인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자기개념 명확성과 실패내성의 관계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사회비교 경향성이 그 과정을 매개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취업

준비생의 실패내성을 발달 및 형성할 수 있는 요인과 기제를 확인함으로써, 실패내성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이다. 더불어, 취업준비생의 심리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심리상담 장면에서도 이들의 특성을 이해하도록 도와 적절한 치료 및 상담 방향을 안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취업준비생의 성별 및 취업준비기간에 따라 각 변인 간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취업준비생의 자기개념 명확성,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사회비교 경향성과 실패내성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취업준비생의 자기개념 명확성과 실패내성 간의 관계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사회비교 경향성의 단순 및 이중매개 효과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설문 당시 실질적인 취업 준비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전국의 만 21~29세 사이의 대학 졸업 예정자, 4년제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참여자는 온라인 데이터 수집 전문 업체를 통해 모집하였다. 최종적으로, 모든 문항에 응답하지 않거나 연구

대상에 맞지 않는 케이스를 제외하고 총 350명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성 128명(36.6%), 여성 222명(63.4%)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5.4세($SD = 1.91$)였다. 취업준비기간은 6개월 미만인 142명(40.6%),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73명(20.9%), 1년 이상 1년 6개월 미만인 58명(16.6%), 1년 6개월 이상 2년 미만인 25명(7.1%), 2년 이상이 52명(14.9%)이었다.

2. 측정도구

실패내성

실패내성을 측정하기 위해 김아영(2018)이 제안한 ‘성인용 실패내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실패경험 후 감정 반응, 행동 반응, 과제 난이도 선호 수준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2문항이다. 각각의 문항은 6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었다. 총점이 높을수록 실패내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나쁜 결과를 받을 때마다 어딘가로 숨고 싶어진다(감정).’, ‘무슨 일에서 실수를 하면 다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해보고 또 해본다(행동).’, ‘낮은 평가를 받더라도 어려운 일을 시도하는 것을 좋아한다(과제 난이도 선호).’ 등이 있다. ‘감정’ 하위 요인은 모두 부정적 문항으로 기술되어 있어 역채점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전체 .81, 감정 .69, 행동 .71, 과제 난이도 선호 .90이었다. 학업적 실패내성 척도를 수정하여 제시된 본 척도는 따로 타당화 과정은 진행되지 않아 추가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측정모형의 모델 적합도 중 RMSEA 값은 다소

좋지 않았으나, 이를 제외한 다른 적합도는 모두 양호하여($\chi^2 = 220.951^{***}$, CFI = .903, TLI = .875, SRMR = .062, RMSEA = .098), 감정, 행동, 과제 난이도 선호의 3요인 구조가 확인되었다.

자기개념 명확성

자기개념 명확성을 측정하기 위해 Campbell 등(1996)이 개발한 Self-Concept Clarity Scale (SCCS)을 김대익(1998)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단일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2문항이다. 각각의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었으며, 부정적 문항으로 기술된 6번과 11번은 역채점 하였다. 총점이 높을수록 자신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고 분명하며, 시간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내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이 매우 자주 바뀌는 것 같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84이었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을 측정하기 위해 Freeston과 Rhéaume, Letarte, Dugas, Ladouceur(1994)이 개발하고 Buhr와 Dugas(2002)가 타당화한 척도를 이슬(2016)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번안 및 타당화한 척도(Korean-Intolerance of Uncertainty Scale-14; K-IUS-14)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및 일(work)과 생활(life)에서의 불만족감과 불확실성으로 인한 자신감 상실 및 일진행에 대한 어려움의 2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4문항이다. 각각의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었다. 총점이 높을수록 모호하거나 불확실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성향이 큰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미래의 불확실함은 내가 충실한 생활을 할 수 없게 방해한다.’, ‘아주 조금만 의심스러워도 나는 그 일을 계속하기 어렵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전체 .93, 불확실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및 일과 생활에서의 불만족감 .92, 불확실성으로 인한 자신감 상실 및 일진행에 대한 어려움 .87이었다.

사회비교 경향성

사회비교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Gibbons와 Buunk(1999)가 개발하고, 최윤희(2003)가 번안한 사회비교 경향성 척도(Iowa-Netherlands Comparison Orientation Measure: INCOM)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능력요인, 의견요인의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1문항이다. 한편, 본 연구의 대상인 취업준비생의 경우 의견보다는 능력을 타인과 비교하는 경향성이 두드러진다. 취업준비생이 타인과 자신의 능력을 자주 비교하는 경우 취업불안(김태정, 민경화, 2020)을 높여 실패에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견요인을 제외하고, 능력요인의 6문항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각각의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었고, 부정적 문항으로 기술된 5번 문항은 역채점 하였다. 총점이 높을수록 타인과 자신의 능력을 비교하는 경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종종 내가 인생에서 달성한 것과 다른 사람들이 달성한 것을 비교한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능력요인 내적합치도는 .83이었다.

3. 자료분석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SPSS 23.0과 SPSS PROCESS Macro v3.4를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내적합치도(Cronbach's α)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변인들의 정규성 및 기술 통계치를 확인하였으며, 성별 및 취업준비 기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이후, 각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취업준비생의 자기개념 명확성과 실패내성의 관계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사회비교 경향성의 단순 매개 및 이중매개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Hayes(2017)가 제시한 연구모형 중 model 6을 적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평가하기 위해 표본 수를 10,000개로

하는 Bootstrapping을 사용하여, 신뢰구간 95%에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기술통계 및 성별과 취업준비기간에 따른 차이 검정

기술통계

본 연구문제 검정에 앞서 주요 변인들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각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확인하였다. 동시에 측정 변인들이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자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으며 모든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Kline(2015)에 따르면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3과 10을 넘지 않으면 정규성 가정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은 모두 3과 10보다 작아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표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치

(N = 350)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실패내성	전체	3.40	.62	-.15	.02
	감정	2.66	.79	.11	-.52
	행동	4.29	.70	-.26	.04
	과제난이도 선호	3.25	1.04	-.07	-.35
자기개념 명확성	전체	2.99	.62	.01	.07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전체	2.95	.78	.24	-.52
	불확실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및 일과 생활에서의 불만족감	3.20	.89	-.06	.18
	불확실성으로 인한 자신감 상실 및 일 진행에 대한 어려움	2.71	.77	.60	-.14
사회비교 경향성	능력	3.05	.71	-.14	

성별 및 취업준비기간에 따른 차이 검정

주요 변인에서의 성차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검정결과, 실패내성의 하위요인 중 행동,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하위요인 중 불확실성으로 인한 자신감 상실 및 일 진행에 대한 어려움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성차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먼저, 실패내성은 전체변인($t = 3.36, p < .01$), 감정($t = 3.28, p < .01$), 과제난이도 선호에서($t = 3.51, p < .01$)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다음으로, 자기개념 명확성 역시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t = 3.69, p < .001$).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경우, 전체변인($t = -2.29, p < .05$), 불확실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및 일과 생활에서의 불만족감($t = -2.82, p < .01$)에서 여성이 남성보

다 높았다. 마지막으로, 사회비교 경향성도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t = -2.45, p < .05$).

취업준비기간에 따른 주요 변인에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국내 구직자의 평균 취업준비기간이 약 10개월임을 고려하여(통계청, 2020), 취업준비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와 1년 이상인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검정결과, 실패내성의 하위요인 중 감정과 사회비교 경향성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취업준비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실패내성의 전체변인($t = 2.90, p < .01$), 행동($t = 2.13, p < .05$), 과제난이도 선호($t = 2.24, p < .05$), 자기개념 명확성에서 1년 미만이 1년 이상보다 높았다($t = 2.38, p < .05$).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전체변

표 2.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 차이 검정

(N = 350)

		남 (n = 128)	여 (n = 222)	t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실패내성	전체	3.55(.67)	3.31(.57)	3.36**
	감정	2.84(.82)	2.56(.74)	3.28**
	행동	4.31(.69)	4.28(.71)	.40
	과제난이도 선호	3.50(1.12)	3.11(.96)	3.51**
자기개념명확성	전체	3.15(.59)	2.90(.62)	3.69***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전체	2.83(.80)	3.03(.75)	-2.29*
	불확실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및 일과 생활에서의 불만족감	3.03(.92)	3.30(.86)	-2.82**
	불확실성으로 인한 자신감 상실 및 일 진행에 대한 어려움	2.63(.79)	2.75(.76)	-1.36
사회비교경향성	능력	2.93(.71)	3.12(.70)	-2.45*

* $p < .05$. ** $p < .01$. *** $p < .001$.

표 3. 취업준비기간에 따른 주요변인 차이 검정

(N = 350)

		1년 미만 (n = 215)	1년 이상 (n = 135)	t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실패내성	전체	3.48(.62)	3.28(.59)	2.90**
	감정	2.73(.79)	2.56(.76)	1.93
	행동	4.35(.71)	4.19(.68)	2.13*
	과제난이도 선호	3.35(1.06)	3.10(.98)	2.24*
자기개념명확성	전체	3.05(.07)	2.89(.62)	2.38*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전체	2.82(.76)	3.17(.75)	-4.21***
	불확실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및 일과 생활에서의 불만족감	3.06(.89)	3.44(.84)	-3.94***
	불확실성으로 인한 자신감 상실 및 일 진행에 대한 어려움	2.58(.75)	2.90(.77)	-3.90***
사회비교경향성	능력	3.03(.73)	3.09(.68)	-.67

* $p < .05$. ** $p < .01$. *** $p < .001$.

인($t = -4.21, p < .001$), 불확실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및 일과 생활에서의 불만족감($t = -3.94, p < .001$), 불확실성으로 인한 자신감 상실 및 일 진행에 대한 어려움($t = -3.90, p < .001$) 모두에서 1년 이상이 1년 미만보다 높았다.

2. 취업준비생의 자기개념 명확성,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사회비교 경향성과 실패내성 간의 관계

주요 변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로자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

표 4. 주요 변인 간 상관분석

(N = 350)

	1	2	3	4
1. 실패내성	-			
2. 자기개념 명확성	.37**	-		
3.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51**	-.50**	-	
4. 사회비교 경향성	-.34**	-.31**	.37**	-

** $p < .01$.

다. 상관분석 결과, 모든 주요 변인은 .01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실패내성은 자기개념 명확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 = .37, p < .01$). 반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r = -.51, p < .01$), 사회비교 경향성($r = -.34, p < .01$)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자기개념 명확성 역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r = -.50, p < .01$) 및 사회비교 경향성($r = -.31, p < .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한편,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사회비교 경향성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r = .37, p < .01$).

3. 매개효과 검정

자기개념 명확성과 실패내성 간의 관계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사회비교 경향성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독립표본 t -검정결과, 성별과 취업준비기간에 따라 주요 변인 대부분에서 차이가 나타났음을 고려하여 성별과 취업준비기간을 공변인으로 통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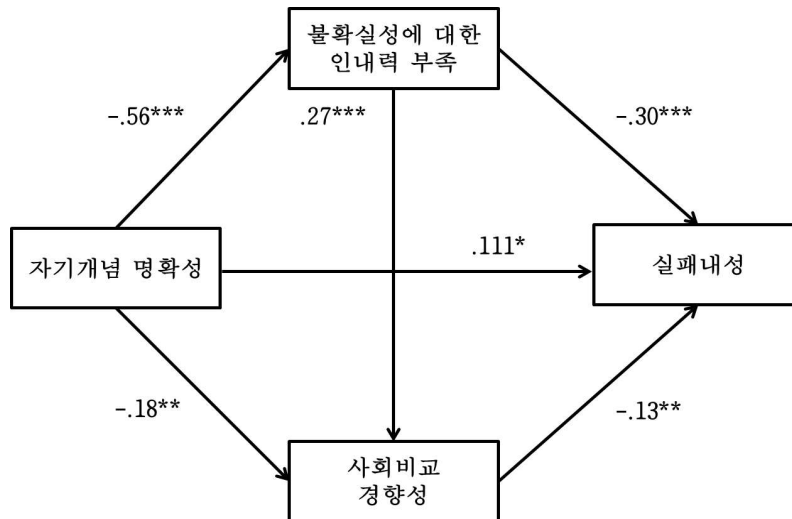
각 변인들 간의 경로는 표 5와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취업준비생의 자기개념 명확성은 실패내성을 정적으로 예측하였고($B = .11, p < .05$),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사회비교 경향성은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표 5.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N = 350$)

경로	B	SE	t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자기개념 명확성 →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56***	.06	-10.10	-.71	-.48
성별 →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03	.08	.38	-.12	.18
취업준비기간 →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25***	.07	3.43	.11	.40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설명량		$R^2 = .27, F(3, 346) = 43.47^{***}$			
자기개념 명확성 → 사회비교 경향성	-.18**	.07	-2.69	-.31	-.05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 사회비교 경향성	.27***	.05	5.13	.17	.38
성별 → 사회비교 경향성	.10	.07	1.37	-.05	.24
취업준비기간 → 사회비교 경향성	-.08	.07	-1.07	-.22	.66
사회비교 경향성의 설명량		$R^2 = .16, F(4, 345) = 16.94^{***}$			
자기개념 명확성 → 실패내성	.11*	.05	2.09	.01	.21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 실패내성	-.30***	.04	-6.91	-.39	-.22
사회비교 경향성 → 실패내성	-.13**	.04	-3.00	-.21	-.04
성별 → 실패내성	-.12*	.06	-2.07	-.24	-.01
취업준비기간 → 실패내성	-.06	.06	-.95	-.17	.06
실패내성의 설명량		$R^2 = .31, F(5, 344) = 30.39^{***}$			

* $p < .05$. ** $p < .01$. *** $p < .001$.



주. 그림의 계수는 모두 비표준화된 수치임.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1. 자기개념 명확성과 실패내성의 관계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사회비교 경향성의 이중매개 모형

($B = -.56$, $p < .001$; $B = -.18$, $p < .01$). 둘째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사회비교 경향성을 정적으로($B = .27$, $p < .001$), 실패내

성은 부적으로 예측하였다($B = -.30$, $p < .001$). 마지막으로 사회비교 경향성은 실패내성을 부적으로 예측하였다($B = -.13$, $p < .01$).

표 6. 이중매개효과에 대한 Bootstrapping 검증

($N = 350$, Bootstrap = 10,000)

경로	B	Boot SE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총 효과 (자기개념 명확성 → 실패내성)	.33*	.05	.23	.43
직접효과 (자기개념 명확성 → 실패내성)	.11*	.05	.01	.21
자기개념 명확성 →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 실패내성	.18*	.04	.12	.25
자기개념 명확성 → 사회비교 경향성 → 실패내성	.02*	.01	.00	.05
자기개념 명확성 →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 사회비교 경향성 → 실패내성	.02*	.01	.01	.04

* $p < .05$.

다음으로 매개모형 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모든 경로에서 10,000회의 Bootstrapping을 실시한 결과, 95% 신뢰구간에 서 매개효과의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자기개념 명확성이 실패내성으로 가는 총 효과($B = .33$, 95% CI [.23, .43])와 직접효과($B = .11$, 95% CI [.01, .21])는 모두 유의하였다. 다음으로 자기개념 명확성과 실패내성의 관계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사회비교 경향성의 단순매개효과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 = .18$, 95% CI [.12, .25]; $B = .02$, 95% CI [.00, .05]). 마지막으로, 자기개념 명확성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사회비교 경향성을 순차적으로 거쳐 실패내성에 이르는 이중매개효과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 = .02$, 95% CI [.07, .04]).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취업준비생의 성별, 취업준비기간과 같은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각 변인에서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자기개념 명확성과 실패내성의 관계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사회비교 경향성이 매개하는 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주요결과에 대한 요약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 및 취업준비기간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다수의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먼저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실패내성 변인 전체에서 남

성이 여성보다 높은 수준의 실패내성을 나타냈으며 이는 메타 연구를 포함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바이다(서미옥, 2019; 장수영, 2007). 선행연구에서 실패내성의 성차는 하위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감정’과 ‘과제 난이도 선택’ 하위요인은 남성이 더 높았고 ‘행동’ 요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일부 연구들에서는 ‘행동’ 요인에서는 여성이 더 높은 실패내성이 있다고 보고한 연구들도 있었다(김종운, 김유진, 2009; 황매향, 장수영, 유성경, 2007). 본 연구에서 ‘행동’ 하위요인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취업준비생이라는 대상의 특성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실패내성의 하위요인 특히, 실패경험 후에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계획 수립과 관련된 ‘행동’ 요인의 성차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기개념 명확성 또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나, 선행연구(Crocetti et al., 2016)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여성의 경우 자신의 불완전함을 공공연히 드러내지 않고자 하는 특성이 더 강해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수용하기 어려워하며 비일관적인 자기개념을 지니기 때문일 수 있다(이새씩, 2016). 또한, 남성들은 독립적인 자아해석에 주로 영향을 받는 반면, 여성들은 관계적-상호의존적인 자아해석에 주로 영향을 받아(Cross & Madson, 1997) 자신에 대한 생각이 주변부에 의해 쉽게 달라지기 때문일 수 있다. 반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조성연, 조한익, 2014)과 사회비교 경향성(서은희, 김정남, 2018)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이는 앞선 연구들에서 나타

난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다음으로, 취업준비기간에 따른 주요 변인에서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사회비교 경향성과 실패내성의 감정 하위요인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취업준비기간이 1년 미만일 때 1년 이상일 때보다 실패내성 및 자기개념 명확성이 높았으며,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낮았다. 각각의 변인들에 대해서 취업준비기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한 연구는 많지 않았으나,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취업준비기간이 길어질수록 정신건강이 악화된다는 것을 보여준다(Paul & Moser, 2009). 취업준비의 장기화는 삶 만족도 및 주관적인 신체적 건강 수준을 떨어뜨렸고(McKee-Ryan et al., 2005), 자살생각 유경험률을 높였다(김지경 등, 2018). 미취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취업 준비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7.6%, 1년 이상 2년 이하 22.1%, 2년 초과일 때 36.2%가 자살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취업준비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급격히 정신건강이 위협해질 수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나타내는 바이다(김지경 등,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취업 준비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심리적 자원들이 소진 되어가는 것은 취업준비생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취업준비기간이 길어질수록 자신에 대한 의심 및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커지고, 실패로 인한 무기력감을 느끼는 것이 취업준비생의 심리적 건강을 저해할 수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둘째, 변인 간의 유의한 관련성이 확인되었다. 먼저, 실패내성은 자기개념 명확성과는 정

적상관을 보였고,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사회비교 경향성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자기개념 명확성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도 정서 및 인지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두경희, 2015)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김나래, 이기학, 2012)를 뒷받침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사회비교 경향성이 높은 경우 실패 후 부정정서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연구결과(박서연, 윤미선, 2018)와도 일맥상통한다. 다음으로, 자기개념 명확성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사회비교 경향성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자기개념이 명확할수록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인내력이 높고, 타인과 덜 비교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박누리, 양재원, 2021). 마지막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사회비교 경향성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불확실함을 줄이고 통제감을 느끼기 위해 정보를 분석하는 노력을 더 많이 하며(김두리, 강규림, 현명호, 2020), 상황을 확실하기 위해 타인과 비교를 더 많이 하게 된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김태정, 민경화, 2020).

셋째, 연구모형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자기개념 명확성과 실패내성의 관계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사회비교 경향성 각각의 단순매개효과와 이중매개효과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자기개념 명확성과 실패내성의 관계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에 의해 매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개념 명확성이 낮은 사람

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쉽게 혼란함을 느끼기 때문에 불확실한 상황을 견디기 어려워 한다는 김더미의 연구결과(2020)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낮으면 실패를 경험했을 때 더 큰 부정 정서를 느끼고(하환호, 변충규, 2015), 경험을 회피하는 성향이 있다는 선행연구(안계훈, 김은정, 2017)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즉, 불확실한 자기에 대한 감각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더욱 취약하게 반응하게 하는 특성으로 작용하여 실패내성을 낮추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비교 경향성 역시 두 변인간의 관계를 매개하였는데, 이 결과는 집단주의 문화에 속한 경우 상향적인 비교를 많이 하게 되어 취업불안 수준이 높고 정신건강 낮다는 연구결과(차민정, 박소영, 송현주, 노연희, 2012)와 그 흐름을 같이 한다. 또한, 자기개념이 불안정할 때 자신의 위치나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사회적인 비교를 더 많이 하게 되며(Duan et al., 2020; Gibbons & Buunk, 1999), 이러한 사회비교 성향은 실패의 원인을 능력에 귀인하게 만들어 부정 정서를 더 크게 경험하게 한다는 선행연구 결과(박서연, 윤미선, 2018)를 지지한다. 따라서 자기개념 명확성이 높아 타인과의 비교를 적게 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위치나 성취에 신경 쓰기보다 자신의 내면에 주목하여 실패를 극복하고 건강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자기개념 명확성과 실패내성간의 관계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사회비교 경향성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개념 명확성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안정감을 제공하여 타

인과의 비교를 덜 하게 만들고, 이는 실패에 적응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성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기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불확실한 상황을 더 위협적으로 지각하고 견디기 어려워하며(Butzer & Kuiper, 2006), 자신의 상황에 대해 확신을 얻기 위해 타인과의 비교를 더 많이 하게 된다는 연구결과(박누리, 양재원, 2021)를 뒷받침한다. 또한, 사회비교를 많이 하게 되면 부정적 평가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김경은, 홍경순, 2019; 김나래, 이기학, 2012), 실패 후에 더 큰 부정정서를 느끼게 된다는 연구결과(박서연, 윤미선, 2018)와도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과 취업준비기간에 따른 변인들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표본이 여성에게 편중되어 있고 표본의 사이즈가 작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하지만, 취업준비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실패내성과 자기개념 명확성은 여성이 더 낮고, 부정적으로 작용할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사회비교 경향성은 여성이 더 높다는 사실은 현재 여성들이 겪고 있는 취업 관련 심리적 취약성과 연결될 수 있다. 실증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보다 취업스트레스 및 우울 수준이 더 높았고(조선희, 전경숙, 2015) 취업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했다(김영우, 2018). 또한, 여성들은 채용 과정에서 성별로 인한 차별을 겪고 있다고 느끼며, 여성이라는 이유로 구직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김향미, 목정후, 김혜정, 2019). 이에 더해 갑작스럽게 시작된 코로나는 20대 여성의 일자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최청락 등, 2020), 여성 취업준

비생의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고조시켰다. 이는 코로나 이후 급격히 증가한 20대 여성의 자살률과도 연관된다(조선희, 2020).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변인들이 여성들의 취업스트레스 및 불안을 예측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보호 요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취업준비기간에 따른 변인의 차이도 확인되었는데, 취업준비기간이 1년 이상 장기화되는 경우 심리적 자원이 될 자기개념 명확성과 실패내성은 고갈되고 부적응적인 요소로 작용할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사회비교 경향성은 커졌다. 국내 구직자들이 평균적으로 첫 취업을 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대략 10개월인 것을 고려하면(통계청, 2020), 많은 청년들이 오랜 기간 취업을 위한 노력을 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업준비기간 동안 약해진 정신건강은 취업 후 잠시 향상되기도 하지만, 이를 완전한 회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김지경 등, 2018). 또한, 장기간의 취업 준비로 지친 청년들은 반복되는 실패경험에 구직을 단념하거나, 삶을 포기하고자 하기도 한다(김지경 등, 2018; 조혜정, 2020).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취업준비생들의 심리적 건강에 주목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한편, 아직까지 취업준비기간에 따른 변인의 차이를 검증한 연구가 많지 않으므로, 연구결과를 단정 짓기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 변인과의 반복검증이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는 코로나 시기 청년들의 심리적 자산이 될 ‘일반적 실패내성’에 주목하였다. 갑작스럽게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일상은 송두리째 바뀌었으며, 그 여파 중 하나로 취업 시장이 얼어붙었다. 이로 인해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은 전보다 오랜 기간 구직활동에 매달리게 되었고, 이들이 맞이하게 되는 실패 횟수는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청년들의 우울, 불안이 높아지는 등 정신건강이 악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Vindegaard & Benros, 2020). 이에 반해, 사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취업 관련 정책들은 대부분 일자리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취업준비생의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은 비교적 등한시되고 있다(윤초롱, 이자명, 2018). 실패내성은 실패로부터 파생될 심리적 고통으로부터 보호해줄 내적 자원으로, 일반적 실패내성의 발달기제를 확인한 본 연구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적응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기초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기존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Clifford(1988)가 제작한 ‘Academic Failure Tolerance Scale’을 바탕으로 김아영(1994)이 한국형으로 개발한 ‘학업적 실패내성 척도’를 활용하여 실패내성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학업적 상황에서의 실패내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연구대상 역시 학령기나 성인 초기에 머물렀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김아영(2018)이 성인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 성인용 실패내성 척도’를 제안함에 따라, 이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실패내성이 학업 외의 영역에서도 범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본 연구는 실패내성 연구를 확장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

셋째, 취업준비생의 실패내성을 발달 및 형성할 수 있는 요인을 확인하고 그 발달기제를

구체적으로 탐색하였다. 청년기에 취업이란 독립적인 성인으로 기능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인생의 관문이자 자아실현의 도구로, 청년들의 적응 수준을 좌우한다. 더 나아가 취업준비과정에서 겪게 되는 경험에서 비롯되는 자아개념과 심리적 특성은 다음 생애 발달 단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장휘숙, 2008). 따라서 취업준비생의 실패내성을 예측하는 요인을 알아본 본 연구는 실패경험에 어떠한 특성을 가진 개인이 적응적이고 유연하게 반응하는지 확인함으로써, 청년들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개입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최근에는 사회 전반에서 실패를 건설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실패내성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는 분위기가 퍼져가고 있다(이원제, 2020). 이러한 추세에 맞게 실패내성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에 거의 연구되지 않았던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 영역을 확장한 것도 의미 있는 시도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과 실패내성과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 역시 드물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기개념 명확성, 사회비교 경향성,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모두 실패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더불어, 본 연구는 자기개념 명확성과 실패내성 간의 관계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사회비교 경향성이 순차적으로 매개한다는 것을 확인하여 실패내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과정을 확인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취업준비생의 심리적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실패내성을 기를 수 있는 변인들을 고려

해볼 가치가 있을 것이다. 자기개념 명확성(Styla, 2015)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Robichaud & Dugas, 2006)은 성인기에도 심리 치료적 개입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사회비교 경향의 경우 상대적 마음챙김 훈련과 같은 일시적인 개입으로도 변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 비교로 인한 부정적 영향력이 즉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anger, Pirson, & Delizonna, 2010). 따라서 이러한 심리 치료적 접근을 참고하여 종합적인 실패내성 증진안을 마련한다면,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방법을 신속히 강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예컨대, 취업준비생의 심리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는 자신에 대한 탐색을 기반으로 자기에 대해 통합된 감각을 발달시키고, 불확실성을 감내하는 시도를 포함한 프로그램(Robichaud & Dugas, 2006)을 포함할 수 있다. 덧붙여, 실패 상황에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보다 스스로를 수용하고 실패를 성장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마음챙김 프로그램을 병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취업준비생의 실패내성 증진방안으로 통합되어 이들의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용 일반적 실패내성 척도의 타당성에 대해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본래 실패내성 척도는 학업적 실패내성을 측정하는 척도로 널리 사용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성인기의 일반적인 실패내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김아영(2018)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성인용 일

반적 실패내성 척도의 감정 요인 신뢰도는 .69로 낮은 편이다. 이는 실패내성의 척도 중에 실패 후의 감정 반응 요인이 실패내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실패내성의 감정 요인 문항에는 ‘나쁜 결과를 받을 때마다 어딘가로 숨고 싶어진다.’, ‘내가 한 일에 대해 낮은 평가 결과를 받으면 슬프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이 문항들은 역채점되어 실패내성 점수에 포함된다. 즉, 실패 후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는 것이 실패내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그러나 Zhang과 Cross(2011)에 따르면 동양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은 실패 후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보다 혼합된 감정을 느낄 때 과제를 더 지속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현승훈, 신종호, 2020)에 따르면, 실패 후에 느끼는 수치심은 자기-변화 열망을 촉구하고 행동을 조절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고려할 때, 한국 사람들이 실패 시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반드시 실패 경험에 더 취약하게 반응하도록 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덧붙여, 실패내성과 정서를 함께 다룬 선행연구(안태영, 2020)를 살펴봤을 때, 실패내성에는 실패 후 느끼는 부정적인 정서 그 자체보다는 그 이후 개인이 그 정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조절해나가는지가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논의는 앞서 성인용 일반적 실패내성 척도를 이용한 최서경과 양수진의 연구(2020)에서도 확인되었는데, 해당 연구에서도 척도의 내적합치도가 .70으로 낮게 나타나 추가적인 척도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종합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성인용 일반적 실패내성 척도의 감정요인

및 전반적인 구성에 대해 다시 한 번 탐색해볼 것을 제안한다.

둘째, 매개변인들이 개인적인 특성에 치우쳐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기의 일반적 실패내성을 다루고자 부모 관련 변인이나 환경 관련 변인이 아닌 개인적 특성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취업준비생이라는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지각된 상황적 제약’이나 ‘주거 형태’와 같은 환경적인 변인을 추가하여 연구한다면, 더욱 다각적인 방면에서 취업준비생들의 실패내성 및 심리적 특성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심리적 변화에 관해 설명할 때 환경적 요인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기에, 사회문화적 배경 안에서 이를 이해하고 지원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밝혀진 실패내성에 선행하는 요인들은 다소 안정적인 특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본 연구모형에 ‘자기격려’나 ‘감사성향’과 같은 유연한 조절요인을 더하여 추가적인 탐색을 해보는 것이 의의가 있을 것이다. 자기격려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불안 사이를 조절하였으며(김정은, 홍정순, 2019), 감사성향은 단기간의 개입에도 취업준비생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우울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효정, 김호영, 2019). 따라서 이러한 변인들과 같이 변인 간의 관계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으면서도, 비교적 간단하게 개입할 수 있는 요인들을 포함하여 본 모형을 확장해볼 가치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정은, 홍정순 (2019). 성인초기의 사회비교 경향성과 사회불안의 관계: 자기격려를 통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조절된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8), 731-757.
<https://doi.org/10.22251/jlcci.2019.19.18.731>
- 김나래, 이기학 (2012).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지각된 진로장벽의 관계: 사회비교 경향성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검증. *직업교육연구*, 31(4), 111-134.
- 김대익 (1998). 한국인의 자아개념 명료성에 대한 연구: 성격, 자의식, 행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더미 (2020). 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취업불안의 관계: 자기개념 명확성,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매개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두리, 강규림, 현명호 (2020).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걱정의 관계에서 체계적 정보처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5(6), 1097-1113.
<https://doi.org/10.17315/kjhp.2020.25.6.003>
- 김아영 (1994). 한국형 학구적 실패에 대한 내성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교육학연구*, 32(3), 59-75.
- 김아영 (2018). 실패는 나의 힘. 성공을 부르는 실패학. 서울: 초이스북.
- 김안나, 최보영 (2019). 대학생의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억제변인과 유발변인에 대한 메타 분석. *청소년학연구*, 26(7), 1-27.
<https://doi.org/10.21509/KJYS.2019.07.26.7.1>
- 김영우 (2018). 대학생이 지각한 취업 장벽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2(2), 155-163.
<https://doi.org/10.21184/jkeia.2018.2.12.2.155>
- 김은지, 김지영, 정세영 (2021). 대학생의 교수-학생 상호작용, 학습참여, 학업 긍정정서, 학업적 실패내성의 구조적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6), 327-345.
<https://doi.org/10.22251/jlcci.2021.21.6.327>
- 김재희, 박은규 (2016). 청년의 성인초기 발달과업 성취유형이 사회적 고립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7(3), 257-284.
<https://doi.org/10.14816/sky.2016.27.3.257>
- 김종운, 김유진 (2009).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초등학생의 학구적 실패내성 간의 관계. *상담학연구*, 10(1), 455-468.
<https://doi.org/10.15703/kjc.10.1.200903.455>
- 김지경, 이운주, 이민정 (2018). 20대 청년 심리정서 문제 및 대응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태정, 민경화 (2020). 취업준비 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취업불안의 관계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사회비교 경향성의 매개효과. *취업진로연구*, 10(1), 31-53.
<https://doi.org/10.35273/jec.2020.10.1.002>
- 김향미, 목정후, 김혜정 (2019). 취업준비생의 심리적 어려움에 관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9), 1321-1347.
<https://doi.org/10.22251/jlcci.2019.19.9.1321>
- 김혜지 (2021. 3. 3). 청년실업 '104만명+α' 구출한다...올해 6조원 총동원. 뉴스1코리아.

- <https://www.news1.kr/articles/?4228780>에서
2021년 7월 9일 인출
- 김효정, 김호영 (2019). 감사일지 작성이 취업
준비생의 감사성향, 불확실성에 대한 인
내력 부족, 취업 스트레스와 우울에 미치
는 영향. *지역과 세계*, 43(3), 39-67.
<https://doi.org/10.33071/ssricb.43.3.201912.3>
- 두경희 (2015). 대학생의 자기개념 명확성 정
도에 따른 사이버 폭력 피해자의 정서와
인지반응. *상담학연구*, 16(5), 213-228.
<https://doi.org/10.15703/kjc.16.5.201510.213>
- 박누리, 양재원 (2021). 대학(원)생의 자기개념
명확성과 사회불안의 관계: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사회비교 경향성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6),
83-97.
<https://doi.org/10.22251/jlcci.2021.21.6.83>
- 박상희 (2009).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 실패내
성, 학교적응 관계 연구. *초등교육학연구*,
16(2), 59-81.
- 박서연, 윤미선 (2018). 고등학생의 사회비교경
향성, 성취귀인, 성취정서의 구조적 관계.
중등교육연구, 66(1), 93-120.
<https://doi.org/10.25152/ser.2018.66.1.93>
- 박우영, 이양주 (2021). 청소년 복싱선수들의
실패내성과 심리적 자원 운동탈진의 관계.
대한무도학회, 23(1), 21-34.
<https://doi.org/10.35277/kama.2021.23.1.21>
- 배진한 (2014). 청년층 직업탐색에서의 ‘엄친아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한국개발연구*, 36
(3), 121-168.
<https://doi.org/10.23895/kdijep.2014.36.3.121>
- 백수희 (2002). 자기존중감, 자기명확성과 타인
의 평가에 따른 정서적 반응.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미옥 (2019). 실패내성과 관련 변인들의 관
계에 대한 메타분석. *교육학연구*, 57(3),
87-118. <https://doi.org/10.30916/KERA.57.3.87>
- 서은희, 김정남 (2018). 대학생의 사회비교성향
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열등감의 매개효
과. *인문사회과학연구*, 19(2), 167-187.
<https://doi.org/10.15818/ihss.2018.19.2.167>
- 소유경, 양수진 (2021). 성인진입기 대학생의
학업적 실패내성과 삶 만족도의 관계에서
그릿과 진로적응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
연구*, 28(4), 363-382.
<https://doi.org/10.21509/KJYS.2021.04.28.4.363>
- 안계훈, 김은정 (2017). 정서적 고통 감내력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걱정 증
상에 미치는 영향: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3(1), 207-228.
- 안태영 (2020). 대학생의 성장적 실패마인드셋과
그릿의 관계: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학업
적 실패내성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초롱, 이자명 (2018). 취업준비생의 취업준비
경험 및 심리적 지원 요구. *학습자중심교
과교육연구*, 18(1), 817-847.
<https://doi.org/10.22251/jlcci.2018.18.1.817>
- 이새싹 (2016). 대학생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우울의 관계: 자기개념 명확성과 외로움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슬 (2016). 한국판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척도 타당화.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석사학위논문.
- 이원제 (2020). 실패박람회[失敗博覽會]. 지반 (한국지반공학회지), 36(5), 6-8.
- 이은영, 하 정 (2016). 성인구직자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부족이 구직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탐색효능감의 매개효과. 직업능력개발연구, 19(2), 57-78.
- 장수영 (2007). 학업 우수 청소년의 자기존중감 및 애착과 학업적 실패내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은영 (2009). 사회비교와 주관안녕: 문화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2), 157-169.
<https://doi.org/10.21193/kjspp.2009.23.2.009>
- 장휘숙 (2008). 성인초기의 발달과업과 시작시기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1(4), 109-126.
- 전해옥 (2016).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학업적 실패내성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대학생 생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2(2), 171-181.
<https://doi.org/10.5977/jkasne.2016.22.2.171>
- 조선희 (2020. 12. 8). 코로나 시대 젊은 여성 자살률 증가를 외면해선 안 된다. 무등일보.
<https://www.honam.co.kr/detail/4qw0Ud/635669>
- 조선희, 전경숙 (2015). 대학생 취업스트레스와 영향요인. 스트레스연구, 23(2), 79-89.
<https://doi.org/10.17547/kjsr.2015.23.2.79>
- 조성연, 조한익 (2014).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및 지각된 통제감이 걱정에는 미치는 영향: 부정적 문제 지향의 매개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15(5), 1647-1669.
<https://doi.org/10.15703/kjc.15.5.201410.1647>
- 조혜정 (2020). 대학생이 경험한 가족환경 역경이 취업스트레스를 매개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적응유연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인간발달연구, 27(4), 47-62.
<https://doi.org/10.15284/kjhd.2020.27.4.47>
- 차민정, 박소영, 송현주, 노연희 (2012). 집합주의 문화가 청년실업에 대한 불안 지각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8(1), 27-51.
- 최광호, 권혁철, 이영순 (2011). 인지행동적 숙달목표향상 프로그램이 목표지향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업적 실패내성에 미치는 효과. 지역과 세계, 35(1), 157-181.
<https://doi.org/10.33071/ssricb.35.1.201106.157>
- 최서경, 양수진 (2020). 대학생의 자기자비와 실패내성의 관계에서 긍정적 재평가와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7(6), 23-46.
<https://doi.org/10.21509/KJYS.2020.06.27.6.23>
- 최윤희 (2003). 스트레스, 통제소재 및 사회비교 경향성이 우울정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청락, 김혜정, 문정희, 이자형, 박금식, 이진숙 (2020). 코로나19 경험을 통한 여성가족 분야 대응전략. 부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최현정, 이동귀 (2019). 초등학교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 태도와 학습된 무기력의 관계: 학업 실패 내성과 회복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6(2), 189-205.
<https://doi.org/10.16983/kjsp.2019.16.2.189>

- 통계청. (2020). 2020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대전: 통계청.
- 통계청. (2021). 2021년 1월 고용동향. 대전: 통계청.
- 하환호, 변충규 (2015).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창업시도태도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0(4), 167-175.
<https://doi.org/10.16972/apjbve.10.4.201508.167>
- 허창구 (2020). 스펙경쟁 사회에서 자기계발 동기와 자기계발 강박이 취업준비생의 심리상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33(1), 93-117.
<https://doi.org/10.24230/kjiop.v33i1.93-117>
- 현승훈, 신종호 (2020). 학업적 실패상황에서 자기효능감, 성취목표지향성에 따라 부정적 정서가 학업적 행동조절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34(2), 421-445.
<https://doi.org/10.17286/KJEP.2020.34.2.09>
- 홍태화 (2021. 01. 13). ‘코로나 백수세대’된 Y... 고용시장서 ‘세대 공백’ 우려. 헤럴드경제.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113000504>에서 2021년 7월 9일 인출
- 황매향, 장수영, 유성경 (2007). 학업우수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애착과 학업적 실패 내성과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21(4), 1029-1046.
- Alessandri, G., De Longis, E., Golfieri, F., & Crocetti, E. (2020). Can self-concept clarity protect against a pandemic? A daily study on self-concept clarity and negative affect during the COVID-19 outbreak. *Identity*, 21(1), 6-19.
<https://doi.org/10.1080/15283488.2020.1846538>
- Bigler, M., Neimeyer, G. J., & Brown, E. (2001). The divided self revisited: Effects of self-concept clarity and self-concept differentiation on 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0(3), 396-415.
<https://doi.org/10.1521/jscp.20.3.396.22302>
- Boelen, P. A., Keijsers, L., & van den Hout, M. A. (2012). The role of self-concept clarity in prolonged grief disorder.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200(1), 56-62.
<https://doi.org/10.1097/NMD.0b013e31823e577f>
- Buhr, K., & Dugas, M. J. (2002). The intolerance of uncertainty scal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English version.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0(8), 931-945.
[https://doi.org/10.1016/S0005-7967\(01\)00092-4](https://doi.org/10.1016/S0005-7967(01)00092-4)
- Butzer, B., & Kuiper, N. A. (2006). Relationships between the frequency of social comparisons and self-concept clarity,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xiety, and depres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1(1), 167-176.
<https://doi.org/10.1016/j.paid.2005.12.017>
- Campbell, J. D. (1990). Self-esteem and clarity of the self-concep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3), 538-549.
<https://doi.org/10.1037/0022-3514.59.3.538>
- Campbell, J. D., Assanand, S., & Paula, A. D. (2003). The structure of the self concept and its relation to 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Personality*, 71(1), 115-140.
<https://doi.org/10.1111/1467-6494.t01-1-00002>
- Campbell, J. D., Trapnell, P. D., Heine, S. J., Katz, I. M., Lavallee, L. F., & Lehman, D.

- R. (1996). Self-concept clarity: Measurement, personality correlates, and cultural bounda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1), 141-156.
<https://doi.org/10.1037/0022-3514.70.6.1114>
- Clifford, M. M. (1988). Failure tolerance and academic risk taking in ten to twelve year old student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58(1), 15-27.
<https://doi.org/10.1111/j.2044-8279.1988.tb00875.x>
- Crocetti, E., Rubini, M., Branje, S., Koot, H. M., & Meeus, W. (2016). Self concept clarity in adolescents and parents: A six wave longitudinal and multi informant study on development and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Journal of Personality*, 84(5), 580-593.
<https://doi.org/10.1111/jopy.12181>
- Cross, S. E., & Madson, L. (1997). Models of the self: Self-construals and gender. *Psychological Bulletin*, 122(1), 5-37.
<https://doi.org/10.1037/0033-2909.122.1.5>
- Duan, J., Xu, Y., & Van Swol, L. M. (2020). Influence of self concept clarity on advice seeking and utilisation.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Advance online publication.
<https://doi.org/10.1111/ajsp.12435>
- Dugas, M. J., Hedayati, M., Karavidas, A., Buhr, K., Francis, K., & Phillips, N. A. (2005).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information processing: Evidence of biased recall and interpretation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9(1), 57-70.
<https://doi.org/10.1007/s10608-005-1648-9>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Freeston, M. H., Rhéaume, J., Letarte, H., Dugas, M. J., & Ladouceur, R. (1994). Why do people worr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7(6), 791-802.
[https://doi.org/10.1016/0191-8869\(94\)90048-5](https://doi.org/10.1016/0191-8869(94)90048-5)
- Gibbons, F. X., & Buunk, B. P. (1999). Individual differences in social comparison: Development of a scale of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1), 129-142.
<https://doi.org/10.1037/0022-3514.76.1.129>
- Guerrettaz, J., Chang, L., von Hippel, W., Carroll, P. J., & Arkin, R. M. (2014). Self-concept clarity: Buffering the impact of self-evaluative information. *Individual Differences Research*, 12(4-B), 180-190.
- Hanley, A. W., & Garland, E. L. (2017). Clarity of mi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f associations between dispositional mindfulness, self-concept clar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06, 334-339.
<https://doi.org/10.1016/j.paid.2016.10.028>
- Hayes, A. F. (2017).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NY: Guilford Press.
- Hayward, L. E., Vartanian, L. R., Kwok, C., & Newby, J. M. (2020). How might childhood adversity predict adult psychological distress?

- Applying the identity disruption model to understanding depression and anxiety disorder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6(5), 112-119. <https://doi.org/10.1016/j.jad.2020.01.036>
- Kim, A., & Clifford, M. M. (1988). Goal source, goal difficulty, and individual difference variables as predictors of responses to failure.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58(1), 28-43. <https://doi.org/10.1111/j.2044-8279.1988.tb00876.x>
-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Y: Guilford Press.
- Kusec, A., Tallon, K., & Koerner, N. (2016). Intolerance of uncertainty, causal uncertainty, causal importance, self-concept clarity and their relations to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Cognitive Behaviour Therapy*, 45(4), 307-323. <https://doi.org/10.1080/16506073.2016.1171391>
- Langer, E., Pirson, M., & Delizonna, L. (2010). The mindlessness of social comparisons. *Psychology of Aesthetics, Creativity, and the Arts*, 4(2), 68-84. <https://doi.org/10.1037/a0017318>
- Leite, C., & Kuiper, N. A. (2008). Client uncertainty and the process of change in psychotherapy: The impact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self-concept clarity and intolerance of uncertainty. *Journal of Contemporary Psychotherapy*, 38(2), 55-64. <https://doi.org/10.1007/s10879-007-9068-7>
- McIntyre, R. S., & Lee, Y. (2020). Projected increases in suicide in Canada as a consequence of COVID-19. *Psychiatry Research*, 290, 113104. <https://doi.org/10.1016/j.psychres.2020.113104>
- McKee-Ryan, F., Song, Z., Wanberg, C. R., & Kinicki, A. J. (2005). Psychological and physical well-being during unemployment: A meta-analytic stud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0(1), 53-76. <https://doi.org/10.1037/0021-9010.90.1.53>
- Parise, M., Canzi, E., Olivari, M. G., & Ferrari, L. (2019). Self-concept clarity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in adolescence: The mediating role of emotion regul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38, 363-365. <https://doi.org/10.1016/j.paid.2018.10.023>
- Paul, K. I., & Moser, K. (2009). Unemployment impairs mental health: Meta-analys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4(3), 264-282. <https://doi.org/10.1016/j.jvb.2009.01.001>
- Rettie, H., & Daniels, J. (2020). Coping and tolerance of uncertainty: Predictors and mediators of mental health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merican Psychologist*. Advance online publication. <https://doi.org/10.1037/amp0000710>
- Robichaud, M., & Dugas, M. J. (2006). A cognitive-behavioral treatment targeting intolerance of uncertainty. In G. C. Davey & A. Wells (Eds.), *Worry and its psychological disorders: Theory, assessment and treatment* (pp. 289-304). John Wiley & Sons. <https://doi.org/10.1002/9780470713143.ch17>
- Satici, B., Saricali, M., Satici, S. A., & Griffiths, M. D. (2020). Intolerance of uncertainty

- and mental wellbeing: Serial mediation by rumination and fear of COVID-19.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and Addiction*. Advanced online publication. <https://doi.org/10.1007/s11469-020-00305-0>
- Schwartz, S. J., Meca, A., & Petrova, M. (2017). Who am I and why does it matter? Linking personal identity and self-concept clarity. In J. Lodi-Smith & K. DeMarree (Eds.), *Self-concept clarity: Perspectives on assessment, research, and applications* (pp. 145-164). Berlin: Springer. https://doi.org/10.1007/978-3-319-71547-6_8
- Smith, M., Wethington, E., & Zhan, G. (1996). Self concept clarity and preferred coping styles. *Journal of Personality*, 64(2), 407-434. <https://doi.org/10.1111/j.1467-6494.1996.tb00516.x>
- Stucke, T. S., & Sporer, S. L. (2002). When a grandiose self image is threatened: Narcissism and self concept clarity as predictors of negative emotions and aggression following ego threat. *Journal of Personality*, 70(4), 509-532. <https://doi.org/10.1111/1467-6494.05015>
- Styla, R. (2015). Shape of the self-concept clarity change during group psychotherapy predicts the outcome: An empirical validation of the theoretical model of the self-concept change. *Frontiers in Psychology*, 6, 1598. <https://doi.org/10.3389/fpsyg.2015.01598>
- Vindegaard, N., & Benros, M. E. (2020). COVID-19 pandemic and mental health consequences: Systematic review of the current evidence. *Brain, Behavior, and Immunity*, 89, 531-542. <https://doi.org/10.1016/j.bbi.2020.05.048>
- Zhang, M., & Cross, S. E. (2011). Emotions in memories of success and failure: A cultural perspective. *Emotion*, 11(4), 866-880. <https://doi.org/10.1037/a0024025>

1 차원고접수 : 2021. 07. 10.
수정원고접수 : 2021. 08. 13.
최종게재결정 : 2021. 09. 27.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cept Clarity and Failure Tolerance among Unemployed Young Adults: The Mediation Effects of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Kim, Dahye

Yang, Sujin

Dep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cept clarity and failure tolerance and whether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mediate the relationship. To this end, an online self-report survey was conducted with 350 unemployed young adults aged 21-29 who have been engaging in an active search for jobs (128 males and 222 females). Descriptive statistics indicated significant differences by both gender and job preparation period. Women and long-term job seekers were more vulnerable to failure and its associated negativ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When process macro (v3.4) was applied for mediation analyses, both single and double mediation models of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were confirmed, respectively, thus expla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cept clarity and failure tolerance. The study suggests that for job seekers to develop tolerance for failure, not only clear belief in themselves but also abilities to endure uncertain situations and to compare less with others are required. These findings will help provide insights on how to intervene in reducing the psychological distress of young people preparing for employment.

Keywords: unemployed young adults, failure tolerance, self-concept clarity, intolerance of uncertainty,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